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 2017년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품 안전규제, 라이선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품 안전규제, 라이선스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캐나다 식품 검사청, 강화된 식품 안전 규제 목록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캐나다, 강화된 식품 안전 규제 목록 발표

2017년 1월 21일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강화된 식품 안전 규제 목록(SFCR: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을 발표했다. 현재 본 규제는 90일 간 진행되는 공공 협의 과정 중에 있으며, 정식 공고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본 규제의 목적은 기존 13개 식품 규제와 식품 표시 규제를 통합하여 캐나다의 모든 식품 분야를 아우르는 규정을 설립하는 것이다. 본 규제가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캐나다 내의 식품 수출입업체는 물론 지역간 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비(非)연방 등록 업체들의 경우 라이선스 제도와 캐나다 식품 검사청의 감독 대상이 된다. 해외에 소재하고 캐나다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수입 업체들은 캐나다와 동등한 수준의 식품 안전 규정이 제도화 된 국가 혹은 지역에 실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식품 안전 규제 목록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수출입 및 지역간 무역 허가 요건, 2) 추적성 요건, 3) 보고 요건 및 일정, 4) 예방 정책 및 예방 정책 계획, 5) 수출 자격 요청 프로세스, 6) 과일 및 채소의 구매자 및 판매자의 농산물 분쟁조정 공사(DRC: Vegetable Dispute Resolution Corporation) 회원 요건, 7) 수입산 육류에 대한 요건 변화, 8) 해외 육류 및 조개류 검역 시스템에 대한 표준 수립, 9) 특정 식품의 용기 사이즈 및 용량 규정, 10) 라벨 규정 및 성분 기준, 11) 특정 식품의 등급 요건, 12) 서비스 제공자 및 추가 공급자들의 친환경 인증 확장

이에 한국 업체들은 라이선스 취득 준비 혹은 기존 수입업체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 확인과 신규 규정 검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출입 계획을 수립 및 수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017년 1월 21일 캐나다 식품 검사청에서 강화된 식품 안전 규제 목록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13개 식품 규정과 라벨 규정이 통합될 예정이다. 정식 공고가 발효될 경우, 기존 비(非)연방 등록업체들을 포함하여 전 식품 업체들의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본 규정은 현재 공공 협의 과정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 21일까지 캐나다 국민에 한해 논평을 받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공식 공고에 대비하여 캐나다 식품 검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존 수출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수입업체들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 및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